

# 농촌주택의 부엌공간 변화에 따른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Changes in Rural Kitchens: Factors Affecting Variations of Kitchen Spaces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住生活學科

教授 尹 福 子

群山大學 家政學科

副教授 柳 玉 順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

Prof.; **Bokcha Yoon**

*Dept. of Home Economics, Kunsan College*

Associate Prof.; **Oksoon Ryou**

###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방법 및 절차

III. 조사결과 및 논의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has been a study on changes seen in rural kitchens and factors affecting the modernization of agrarian kitchen spac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physical changes in kitchen design were carried out rapidly after 1977. This period coincided directly with the period in which kitchen improvement projects were fostered by the Sae Ma-Eul UNDONG

2) The study showed the macro factors contributing to changes in kitchen space to be government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The study showed the micro factors influencing kitchen space changes to be classified along socio-demographic lines and family lifestyle.

3) The factors affect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kitchens have been divided into socio-demographic and lifestyle characteristics. The level of education achieved by the husband was the most significant amo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Most

\*이 논문은 1988년도 문교부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important among lifestyle characteristics were the cooking fuel used during the slack farm season, eating habits, heating fuel and eating space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some implications in terms of government housing policy. Policymakers should be aware of suitable kitchen spaces to rural households in order to meet their housing needs and expectations.

## I. 서 론

근래에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이와 더불어 생활양식이 변모됨에 따라, 전통적 주거의 취약점으로 흔히 지적되어 왔던, 부엌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 기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농촌의 부엌은 비위생적, 비능률적인 장소로 인식되리 만큼, 시설면, 재료면, 구조면에서 도시의 부엌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다. 농촌의 주부들은 가사노동 외에 농업노동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부엌조차도 비능률적이어서 농가주부에게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더구나 농업노동이 노령화, 부녀자화됨에 따라 주부의 농업노동 시간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의 감소가 필연적이고, 이 문제의 해결은 부엌개량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본다(임평자, 1985).

1970년대초를 기점으로 일어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시작되어 최근까지 부분적으로 수정·보완되는 형식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고도로 발전하는 산업화과정에서 냉장고, 가스레인지, 기타 가전제품의 보유율이 농가에도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생활양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개량된 주택의 부엌조차도 재래 전통적 농가생활의 변화에 서서히 대응하기 보다는 급격한 도시주택으로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이러한 생활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농가주택의 특성에도 부적합한 부엌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거주인의 지역특성과 생활양상을 조사하여 농가의 생활에 맞고, 거주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주택개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논문들이 몇편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그

리나 이들 중 대부분은 주거공간 전체에 관한 것이거나(최찬환, 1986; 박경옥, 1986) 부엌공간에 초점을 둔 것이라 할지라도 사례연구(최병숙, 1988; 이원, 1987)에 그쳤으며, 부엌공간의 변화와 변화요인을 종합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부엌공간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농가주택 거주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부엌공간을 계획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1. 연구의 목적 및 가설

이러한 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부엌공간의 변화내용과 시기를 조사하여 변화 과정을 파악한 후 유형화한다.
- 2) 부엌공간의 변화에 따른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미시적 요인을 규명한다.
- 3) 부엌공간의 만족도 요인을 규명하고 만족도를 평가한다.

위의 연구목적에 따라 부엌공간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미시적 요인과 만족도 요인 및 만족도 평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부엌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식생활양식 특성이 부엌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부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식생활양식 특성이 부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부엌유형에 따라 부엌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를

제한하고 그 한계점을 밝힌다.

### 1) 조사대상지역의 범위

조사대상지역은 전라북도내의 평야지대(13개군 중 5개군, 즉 완주, 익산, 옥구, 정읍, 김제군)이며, 조사대상 가구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전업농가<sup>1)</sup> 및 겸업농가<sup>2)</sup>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같이 평야지대로 한정된 이유는 사전조사 결과, 산촌이나 어촌은 생업과 지역적인 조건등의 차이로, 생활양식이 평야지대와는 차이가 있었고, 주택구조도 대부분이 재래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국의 농가에 일반화하여 설명하거나 산간지대와 해안지대의 농가에 까지 확대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2) 측정도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문헌연구와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만들었다. 측정도구는 본 연구영역 전공교수 5인의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사받았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와 재검사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도구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개발된 도구임으로 표준화된 도구로 간주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방법의 개요

본 논문에서는 문헌조사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실증적 연구방법으로는 현지조사 방법과 설문지를 통한 면접 및 관찰조사 방법등을 이용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사용하였던 정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이 갖고 있는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여러가지 단점들(김경동, 이은숙, 1988)을 보완하기 위하여 준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현지 면접조사, 관찰조사, 실측 등의 질적 연구방법도 병용하였다.

### 2. 기초조사

본 연구에서는 주택 부엌공간의 실태 및 변화내용

을 조사하여 타당성 있는 예비조사의 설문구성을 위해, 2차에 걸쳐 개량주택과 재래주택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부엌공간은 재래식 주택과 개량주택으로 크게 나뉘어지며, 개량주택은 다시 시기별로 보면 1977~1987(현재)까지 4단계로 구분되고 부엌공간도 이에따라 변화내용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 3. 예비조사

다음의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조사시기는 1987년 7월 15일~1987년 8월 22일까지였고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평야지대의 4개군에 거주하는 42가구의 주부였다.

1) 첫째 목적은 부엌공간의 변화에 따라 부엌을 유형화하였다. 본 예비조사 결과 변화가 가장 많았던 물리적 측면 중 설비 및 시설, 재료, 구조면을 기준으로하여 입식형, 절충형, 재래형부엌의 3가지 유형으로 分類되었다(도표 1).

2) 두번째 목적은 부엌공간의 유형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변인을 선정하는 데 있다. 이 변인들을 가지고 본 조사에서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 예비조사를 위한 설문내용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 주택의 물리적 특성, 부엌공간의 물리적 특성, 식생활양식 특성 그리고 부엌의 개조행위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문항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부엌의 설비 및 시설면 중 작업대의 문항에 대한 만족도는 내적일치도법을 사용하였는 바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가 .79로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남자의 연령과 학력, 가족수, 농한기의 식사장소와 방법, 농한기의 취사용 연료, 부엌기기 소유수, 난방연료가 본조사를 위한 최종변인으로 선정되었다.

$$* \alpha = \frac{N \bar{\rho}}{1 + \bar{\rho}^{N-1}} \quad N: \text{문항의 수}$$

$\bar{\rho}$ : 문항간의 상관계수의 평균

$$\left( \frac{\sum NC^2}{N} \right)$$

1) 전업농가: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가.

2) 겸업농가: 농사 이외의 소득원이 있는 농가.

<도표 1> 부엌공간의 물리적 측면에 따른 유형화

물리적 요소 유형	설비 및 시설면				재료면				구조면		
	급·배수설비	작업대	수납장	취사용원	난방용원	환기설비	바닥	벽	천장	부엌의 바닥고저	아궁이 유무
입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엌안 싱크대 위 배수설비가 갖추어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리대, 개수대, 가열대 등의 작업대가 모두 설치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업대 위, 아래에 포괄된 이물박이 장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풍기 (웬)</li> <li>창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닐류</li> <li>타일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재</li> <li>벽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재 (합판류)</li> <li>벽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없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없다</li> </ul>
절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엌안 싱크대 위 배수설비가 갖추어짐</li> <li>부엌안 싱크대 위 배수설비와 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리대, 개수대, 가열대, 80~85cm 높이의 1개 이상의 작업대와 80~85cm 높이의 1개 이상의 작업대 (1대 포함)</li> <li>조리대, 개수대, 가열대, 60~80cm 높이의 1개 이상의 작업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박이 장치</li> <li>이동식 장이나 아래에 설치된 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스</li> <li>연탄</li> <li>석유</li> <li>질·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탄</li> <li>나무</li> <li>질·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멘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멘트</li> <li>회반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재 (합판류)</li> <li>시멘트</li> <li>회반죽</li> <li>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있다</li> <li>없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있다</li> </ul>
재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엌 안쪽에 배수설비가 되어 있음</li> <li>부엌 안쪽에 배수설비와 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리대, 개수대 등의 작업대가 35~60cm 높이의 1개 이상 설치됨</li> <li>부엌 안쪽에 1개의 작업대 설치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박이 장치</li> <li>이동식 장이나 물박이 장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무</li> <li>질·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무</li> <li>질·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창 (출창)</li> <li>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있다</li> </ul>

변화내용		변화시기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용도변화								●
부엌증축							●	●
설비 및 시설면	급·배수			●	●	●	●	●
	작업대		●	●	●	●	●	●
	수납장				●	●	●	●
	취사 열원					●	●	●
	난방 열원						●	●
	환기 설비							●
재료면	바닥			●		●	●	●
	벽					●	●	●
	천정					●	●	●
구조면	바닥의 고저		●			●	●	●
	부엌 아궁이					●	●	●

<도표 2> 부엌공간의 변화내용과 변화시기

#### 4. 본조사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에 사용될 도구를 확정지었고, 각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조사를 위한 설문지의 구성과 그 내용,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조사 대상자의 표집, 자료수집방법 및 조사기간, 자료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설문구성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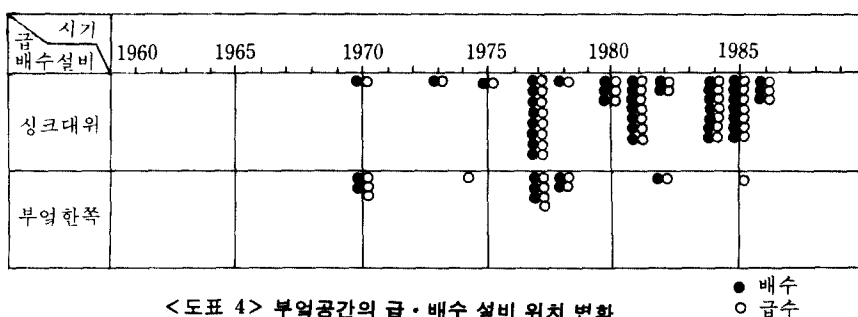
예비조사 결과,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본조사

에서는 예비조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재 배치하고,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였다. 최종으로 완성된 설문지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 부엌공간의 물리적 특성, 식생활양식 특성, 부엌의 개조행위,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 2)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설문내용에 대한 타당도는 전문가에 의해 검증되었고, 신뢰도는 작업대의 만족도에 관한 4문항을 선정하여 내적일치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c's \alpha$ 가 .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일관





<도표 4> 부엌공간의 급·배수 설비 위치 변화

5) 자료처리

총 130부의 설문지를 조사하였는데, 주부가 직접 대답하지 않은 1부와 성의없게 대답한 2부를 제외한 127부를 본조사 연구의 통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를 위한 분석방법은 단순빈도, 백분율, 일원변량분석법을 통한 F-test와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 중다회귀분석, n<sup>2</sup>등이 사용되었다.

III. 조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부엌공간의 변화내용을 파악하고, 부엌공간의 변화에 따른 유형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고, 부엌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부엌공간의 변화내용과, 부엌유형의 변화요인 및 만족도의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부엌공간의 변화

1) 부엌공간의 물리적 측면의 변화내용과 시기

<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주택 127세대의 부엌의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부엌공간의 주된 변경은 설비 및 시설면, 재료면, 구조면의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 용도변경과 부엌크기의 변경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시기는 주로 1970년대 초에 시작하여 1977년 이후에 활성화 되었다.

2) 부엌공간의 설비 및 시설

설비 및 시설면 중 가장 많은 변경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작업대였다(<도표 2>), 작업대는 개수대, 조리대, 준비대, 가스대, 배선대로 구분되는데 그 중 개수대의 변경사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가스대, 조리대, 배선대, 준비대 순서로 나타났다(<도표 3>).

작업대의 변경이 활성화된 시기는 <도표 3> 1977년 이후이며, 그 재료는 1970년대는 시멘트, 타일, 나무에서 최근에 이룰수록 스테인레스와 나무로 된 공장제품의 입식작업대로, 그 높이는 60cm 미만에서 60~80cm를 거쳐 80~85cm높이로 변경되었다. 두 번째로 변경행위를 보인 급·배수 설비는 거의 대다수가 동시에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를 시대별로 보면 <도표 4>, 1970년도에는 대부분이 부엌 한쪽에 수도가 설치되고 배수구가 부엌바닥에 설치되어 급·배수가 이루어지는 형태였으나 1977년 이후에는 수도를 부엌 개수대\*\* 및 싱크대\*\*\* 위에 설치하여 입식의 형태로 변경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세 번째로 변경된 취사열원은 1980년 이후 가스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편리성 및 입식으로의 변경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네 번째로 변경된 것은 수납장인데 이것은 1981년 이후 공장제품인 작업대 위·아랫장을 구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작업대들의 공장제품 구입 시기와 일치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외 난방열원과 환기설비는

\*\*개수대 : 집에서 만든 것으로서 물을 사용하는 허리높이 정도의 작업대이며 콘크리트를 시멘트몰탈이나 타일로 마감한 것을 말한다.

\*\*\*싱크대 : 개수대와 같은 작업대로서 스테인레스로 된 개수통이 하나 또는 두개이며, 하부 수납장은 나무로 된 공장제품을 가리킨다.

\*개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변화는 부엌이 전체적으로 달라진 경우는 변화라 칭하고 부분적인 개조행위는 변경이라 한다.

변경이 거의 없었지만 그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난방 열원의 경우 질·겨의 사용에서 연탄으로 바뀌었고, 환기설비는 신·재축시에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설비 및 시설면 중에서 작업대와 급·배수 설비가 가장 많이 설치되었고 그 시기는 1977년 이후였다. 따라서, 거주자는 작업대와 급·배수의 설비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그 재료는 시멘트와 타일에서 스테인레스로 된 공장제품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 3) 부엌공간의 마감재료

재료면에서는 바닥, 벽, 천정의 순으로 변경되고 있었다<도표 2>. 이는 재래형 부엌의 결점인 비 위생적이고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벽이나 천정보다도 부엌바닥을 우선적으로 변경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을 변화시기와 관련지어보면<도표 5>, 부엌 바닥마감재인 시멘트로의 변경은 1970년부터 시작되어 1977년 이후에 활성화 되었으며, 1980

년대에 이르러서는 비닐타일류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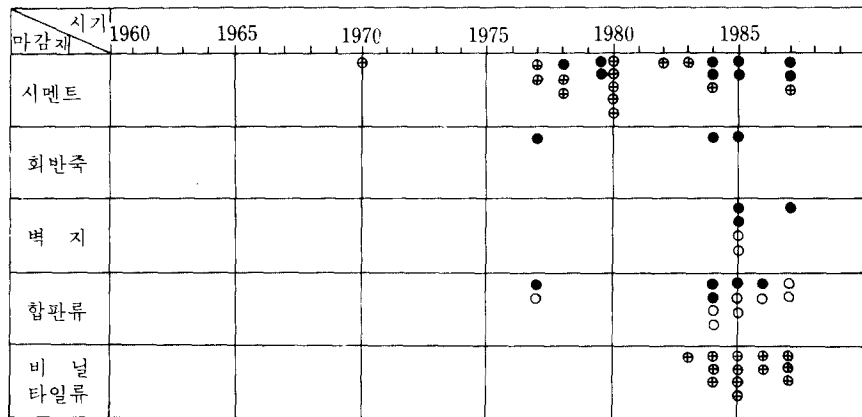
부엌벽의 마감재는 1977년부터 시멘트, 회반죽으로 1984년부터는 합판류 및 벽지로 변경되었다.

부엌의 천정마감재가 변경된 경우는 바닥, 벽의 마감재의 변경에 비해 그 사례수가 적으며, 1984년부터는 흙에서 벽지로 또는 합판류로 변경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1980년대에 이르러 점차 부엌의 설비가 공장제품으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지어 볼 때, 부엌이 입식화되는 경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하겠다.

### 4) 부엌공간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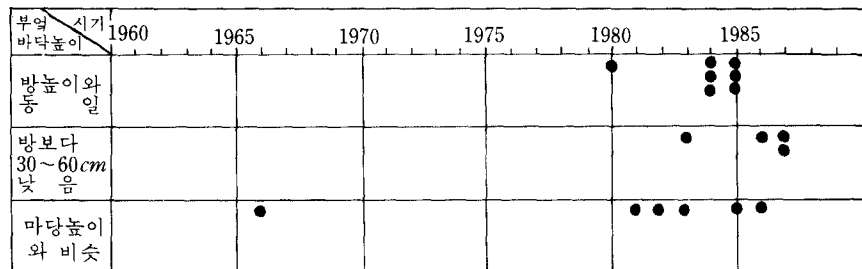
구조면에서는 부엌바닥의 고저차에 관한 변경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엌아궁이의 변경이었다<도표 2>.

부엌바닥의 고저차<도표 6>에 대한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방 높이와 동일하게 변경한 사례가 많았으나 조사당시도 방보다 30~60 cm 낮게 한 경우와, 마당



<도표 5> 부엌공간의 마감재의 변화

● 벽  
○ 천정  
⊕ 바닥



<도표 6> 부엌 바닥의 고저차



높이와 비슷한 경우도 있었으며, 그 시기는 주로 1980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방높이 보다 30~60 cm 낮은 경우는 위에 다락을 둔 상태로 부엌만을 변경한 경우이고, 마당높이와 비슷한 경우는 농가의 특성상 주부가 농사일과 부엌일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오히려 드나들기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방높이와 동일하게 변경시킨 경우, 부엌내의 아궁이는 1981년 이후 부엌옆의 부속공간인 제 2의 부엌으로 옮기고 있었다. 이는 입식화 경향이 1980년대에 나타난 것과 관련지어 볼 때, 부엌을 입식화하면서 농가주택에서 여전히 필요한 과거재래식 아궁이를 부엌밖으로 옮긴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이곳에서는 농번기가 가족행사 때를 대비하여 음식준비 및 뒷처리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부엌공간의 물리적 변화내용 중 거주자의 변경행위가 많았던 곳은 설비 및 시설면, 재료면, 구조면이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시기는 1980년대 이후이고, 내용면에서는 설비 및 시설, 재료, 구조면의 순으로 많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경향은 부엌공간이 점차 입식화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부엌공간 유형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부엌공간의 변화내용에 따른 유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거시적·미시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1) 거시적 요인

#### (1) 정책적 측면

새마을 사업은 1970년도를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나 주택개량 사업의 일환이었던 부엌 개량사업은 1976~1977년에 이루어졌고, 전반적인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의한 주택개량은 1978년 표준형 평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터 더욱 활성화되었다.

1976~1977년의 부엌개량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부엌의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최초로 급·배수의 설비가 이루어졌으며, 그 위치는 부엌의 한쪽이나 개수대 위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개수대 설치와 함께 작업대를 높이면서 그 재료는 시멘트나 타일로 변경하는 등 재래형에서 절충형으로 변화시켰다.

1978년 이후에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용자 등을 통한 정부주도의 주택개량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부엌유형을 절충형(1978) 및 입식형(1980)으로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 (2) 산업화

부엌공간의 변화는 1976년 이후부터 1980년대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 있어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추진된 시기이다. 그러므로 부엌공간의 변화는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영향도 컸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산업화에 따른 농촌 생활의 변화를 농촌의 영농방식의 변화와, 관련된 생활용품의 보유현황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농기계 보유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계화율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해 살핀다. 그러나 요즘은 흔히 농기계는 임대해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농업노동에 기계를 사용하는 기계화율이 농기계 보유율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구의 농기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총 127가구 중 동력분무기 47.2%, 양수기 30.7%, 경운기 26.0%, 이앙기 16.5%, 탈곡기 13.4%, 콤팩트인 5.5%, 트랙터 2.4%의 순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127세대중 89세대(62%)가 60% 이상의 기계화율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기계화율이 높은 것은 여러가지 시대적 여건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즉, 산업화의 결과로 농촌인구가 감소되었고, 농촌인구가 노령화·부녀자화됨에 따라 기계화가 진전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여를 전업으로 하는 가구도 생겨났고, 마을 공동소유의 기계를 대여해서 쓰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영농기계화에 따라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또 노동인구의 감소는 이들의 취사장소인 부엌공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부엌과 관련된 생활용품 중 전기제품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그 중 대표적으로 전기냉장고, 전기밥솥, 가스렌지 등 가사노동과 관련된 기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부엌과 관련된 전기제품의 보유현황은 농촌의 電化사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데, 본 조사대상 지역에 전기가 보급된 것은 1970년 이후였다. 또한, 이런 제품의 구입은 교통의 발달, TV보급, 소득증대, 편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의식의 변화, 이들제품 판매원들의 농촌침투 등과 관련이 깊다.

이들의 구입시기 및 사례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냉장고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1965년에 1.6%에 불과했던 것이 1980년에는 42.5%에 이르렀고, 조사당시인 1987년에는 91.3%가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기밥솥은 1970년에 1.6%, 1980년에 44.9%, 1987년에는 84.3%, 가스렌지는 1980년에 0.8%, 1985년 46.5%, 조사당시에는 70.9%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따라 냉장고, 전기밥솥, 가스렌지의 보유율의 증가는 취사생활과 관련성이 깊은 것이므로 부엌공간의 변화에 따른 유형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 2) 미시적 요인

본조사에서는 부엌공간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예비조사에서 선정된 사회인구학적 특성(남자 학력과 연령, 가족수), 식생활양식 특성(취사와 난방연료, 식사 장소와 방법, 부엌기기 소유수)과 부엌 유형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의 <가설 1>과 <가설 2>를 회귀분석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논의한다.

<가설 1>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부엌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비조사에서 선정된 변인과 부엌유형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독립변수로 선택된 3개의 변인이 부엌유형을 7%( $R^2$ , .07) 설명해 주고 있다. 개별 회귀계수에서 다른 독립변인, 즉, 가족수나 남자의 연령이 통제 되었을 때, 남자학력이 부엌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대체로 긍정되었으며, 부엌유형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될 수 있다. 표준화 회귀계수(beta 값)는 남자학력( $X_1$ )이 .22로 부엌유형에 영향을 주고 나머지 계수는 .02, -.14 정도로서 큰 기여를 하고 있지 않았다 <표 1>.

<가설 2> 식생활양식 특성이 부엌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정된 5개의 독립변수와 부엌유형간의 관계규명을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독립변수 모두는 부엌유형을 51% 설명해 주고 있으며, 식사방법과 부엌기기 소유수가 통제되었을 때 취사연료나 난방연료는 부엌유형에 .001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 1> 부엌 유형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표(I)  
(N=127)

독립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화 회귀계수 (beta)	b의 표준오차	F 값
남자학력( $X_1$ )	.10	.22	.04	6.15***
가족수( $X_2$ )	.01	.02	.03	.05
남자연령( $X_3$ )	-.05	-.04	.03	2.14
회귀상수	.95			
$R^2$	.07			
Adjusted $R^2$	.05			

\*\*\* $p < .001$

<표 2> 부엌 유형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표(II)  
(N=127)

독립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화 회귀계수 (beta)	b의 표준오차	F 값
취사연료(농한기) ( $X_1$ )	.23	.48	.04	40.08***
식사장소(농한기) ( $X_2$ )	-.25	-.18	.10	5.80***
난방연료( $X_3$ )	.17	.18	.08	5.06***
식사방법(농한기) ( $X_4$ )	-.25	-.10	.20	1.60
부엌기기소유수 ( $X_5$ )	.0	.02	.01	.05
회귀상수	3.05			
$R^2$	.51			
Adjusted $R^2$	.49			

\*\*\* $p < .001$

로, 식사장소는 .001 수준에서 부엌유형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대체로 긍정되었으며, 부엌유형은 식생활양식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될 수 있다. 표준화 회귀계수는 취사연료가 .48로 부엌유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식사장소와 난방연료가 똑같이 .18로 그 다음으로 영향을 주며, 나머지 계수는 .10 이하로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표 2>.

## 3. 부엌공간의 만족도 요인파 그 평가

본조사에서는 부엌공간의 만족도 요인으로 예비조사에서 선정된 사회인구학적 특성(남자학력과 연령, 가족수), 식생활양식 특성(취사와 난방연료, 식사장

<표 3> 부업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표 (I)

(N=127)				
독립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화 회귀계수 (beta)	b의 표준오차	F값
남자학력(X <sub>1</sub> )	.13	.28	.04	8.83***
가족수(X <sub>2</sub> )	-.02	-.09	.03	.78
남자연령(X <sub>3</sub> )	.02	.08	.03	.55
회귀상수	3.05			
R <sup>2</sup>	.07			
Adjusted R <sup>2</sup>	.05			

\*\*\*p<.001

<표 4> 부업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표 (II)

(N=127)				
독립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화 회귀계수 (beta)	b의 표준오차	F값
취사연료(농한기)(X <sub>1</sub> )	.10	.26	.03	8.46**
식사장소(농한기)(X <sub>2</sub> )	.15	-.14	.09	2.65*
난방연료(X <sub>3</sub> )	.15	.19	.07	4.59**
식사방법(농한기)(X <sub>4</sub> )	-.47	-.24	.18	6.88**
부업기기소유수(X <sub>5</sub> )	.00	.02	.01	.05
회귀상수	4.00			
R <sup>2</sup>	.36			
Adjusted R <sup>2</sup>	.33			

\*p<.05. \*\*p<.01.

소와 방법, 부업기기 소유수)과 부업 만족도 그리고 부업유형과 부업 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가설 3>과 <가설 4>는 회귀분석으로, <가설 5>는 변량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고 그 결과를 논의한다.

<가설 3>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부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로 선택된 3개의 변인이 부업 만족도를 7%(R<sup>2</sup>, .07) 설명해 주고 있으며, 가족수와 남자의 연령을 통제했을 때 부업의 만족도를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설명해 주는 변인은, 남자학력(X<sub>1</sub>)의 beta 값이 .28로 부업유형에 영향을

<표 5> 부업유형에 따른 부업 만족도

부업유형	N	Mean	F	Duncan's	n <sup>2</sup>
① 재래형	31	2.98	47.47***	A	.44
② 절충형	64	3.37		B	
③ 입식형	32	4.00		C	

\*\*\*p<.001

미치고 있고, 나머지 가족수(X<sub>2</sub>)와 남자연령(X<sub>3</sub>)은 beta 값이 .09, .08로서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상의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중 남자의 학력이 부업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설 4> 식생활양식 특성이 부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4>에서와 같이, 독립변수로 선정된 5개의 변인이 부업 만족도를 36%(R<sup>2</sup>, .36) 설명하고 있으며, 변인 가운데 부업기기 소유수를 통제 했을 때 취사용 연료, 식사방법, 난방연료는 모두가 .01 수준에서, 식사장소는 .05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대체로 긍정되었다. 부업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취사용 연료(beta 값, .26)이고 그 다음이 식사방법(-.24), 난방연료(.19), 식사장소(-.1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설 5> 부업유형에 따라 부업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업의 만족도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업의 유형과는 .001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단간의 차이를 보면 입식형 부업 집단이 가장 만족도가 높고 그 다음이 절충형, 재래형의 순서로 확연히 구분되었다. 또한 n<sup>2</sup> 값이 .44로 나타나 부업 만족도는 부업 유형으로 44% 정도 예측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입식형 부업일 수록 부업에 대한 만족도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가설 1~5>의 분석 결과, 부업의 유형이 입식형일 수록 거주자의 부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서 입식형의 부업유형을 결정짓는 4가지 요인에 대해서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것 역시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입식형 부업이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지지해 주었다.

#### IV. 결론 및 제언

주거공간은 거주인의 생활에 맞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거주인의 생활조사를 바탕으로 한 주택 계획 및 부엌공간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가 거주인의 생활에 적합한 부엌공간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부엌공간의 변화를 파악하고 부엌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만족도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부엌의 물리적 측면의 변화내용과 그 시기를 살펴보면, 설비 및 시설면의 변경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재료면이었다. 이러한 변경의 활성화 시기는 1977년 이후로, 변경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물리적 측면 중 변경이 가장 적은 것은 구조면이었고, 그 변경 활성화 시기는 1983년 이후로 설비 및 시설, 재료면보다 다소 늦게 진행되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1977년에는 절충형의 부엌으로 변화되었고, 1980년에 들어서서는 입식형 부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2) 부엌공간의 변화요인 중 거시적 요인으로, 정부시책인 새마을사업은 부엌을 절충형과 입식형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차원에서 부엌개량 및 주택개량을 추진하되, 농촌실정에 맞게 개선하려면 농촌의 생활을 충분히 파악하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농촌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도 부엌공간 유형의 변화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농방식의 기계화와 농기계의 현대화, 농촌생활에 적합한 생활용품의 대량생산과 보급등이 이루어 진다면, 부엌공간의 개선은 물론 더 나아가서 농촌생활의 질적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부엌공간 유형의 변화요인과 만족도 요인의 결과가 거의 비슷하였다. 미시적 요인인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부엌의 유형, 또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남자의 학력 뿐이었고, 식생활양식 특성 중에서는 농한기의 취사연료, 식사장소와 방법, 그리

고 난방연료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의 학력이 높을 수록, 취사연료가 가스일수록, 식사 장소가 부엌일수록, 난방연료가 연탄일수록, 입식형 부엌을 요구하고 있었고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4) 부엌의 유형과 만족도를 살펴보면, 양자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점차로 입식형 부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그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생활은 도시생활과는 달라서 거주자는 도시형의 입식부엌만으로는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재래형 부엌에서 필요했던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제 2의 부엌공간을 갖춘 입식형 부엌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장차 영농방식이 과학화되고 농번기 식생활양식이 도시의 패턴으로 변화되면, 제 2의 부엌공간은 점차로 도시의 다용도실처럼 변하여 도시주택의 부엌과 비슷하게 되리라고 예측된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결론을 내리면서,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할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지역을 전북지역의 평야지대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촌과 어촌 그리고 전국의 농가에까지 확대하여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현재 농촌주택 부엌에서는 도시생활에 맞게 만들어진 공장제품의 작업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농촌생활에 적합한 것인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농촌생활에 적합한 작업대를 따로 고안하여 대량생산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1. 강영환. (1987). 한국 농촌 주거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도시화 과정에 따른 주거형태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 6, 45-56.
2. 김진일. (1980). 농촌취락과 생활공간에 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지, 24, 95, 3-11.
3. 김철호. (1984). 전통 주거공간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서양 주거양식의 영향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철희외 4인. (1978). 취락구조 개선 및 주택개발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 새마을운동 연구논총, 4, 13-14.
5. 내무부. (1971). 농촌 취락구조 개선과 주택개량 방안 연구. 서울 : 내무부.

6. 박경옥. (1987). 농촌 개량주택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1) : 생활공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 3, 115-123.
7. 박성준. (1986). 농촌건축의 공간구성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덕봉리 마을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신대순. (1978). 농촌 주택개량 사업과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추진방향. 지방행정, 293, 40-53.
9. 윤복자와 2인. (1983). 부엌의 작업대와 수납장의 표준치수선정을 위한 연구(1). 서울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생활과학연구소.
10. 윤정옥. (1981). 한국의 전통적 주방공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이양후의 2인. (1980). 새마을 성공부락의 농가생활 진단에 관한 연구. 서울대 농업개발연구보고, 1, 1, 79-196.
12. 이영심. (1976). 농촌주부의 시간사용과 가사기구 및 설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이 원. (1987). 농촌주택의 주공간과 주생활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용인군 삼가리 마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이한기. (1977).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부간의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임평자. (1985). '85농촌의 생활개선 지도. 식품과 영양, 6, 1, 50-52.
16. 조재순. (1978). 농촌 가정생활 향상에 따른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지 순. (1973). 농촌주택에서의 작업공간. 건축사, 51, 38-41.
18. 최병숙. (1988). 서울근교 농촌주택에 있어서 식사 및 취사공간에 관한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최은숙. (1973). 농가의 부엌실태 조사연구 : 시설 및 기기를 중심으로. 문교부 연구보고서 농학계(1), 16-36.
20. 최찬환. (1986). 한국의 농촌과 도시 주거양식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1. 한필원. (1987). 농촌지역 농가주택의 이용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 :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